

'예비학부모 공금증 풀어드려요'

도교육청 '초·중등 예비학부모 대상 학교정보 알람' 14일부터 시·군교육지원청별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2023년 초·중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 정보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 '교육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간담회를 통해 예비학부모들이 서거석 교육감에게 요청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이에 도교육청은 예비학부모들에게 전북교육정책의 주요사항과 학생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 계획, 진로진학 정보와 함께 학교생활 준비사항과 올바른 학습 습관, 교육과정(자유학기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은 15일 김제·임실, 16일 완주·부안, 18일 고창·진안, 21일 남원·무주, 22일 장수, 29일 순창·진주, 12월 1일 정읍 순이다. 다만 군산은 29일과 30일, 익산은 14일과 28일 초·중학교로 나눠 실시된다. 한편, 교육과 관련해 현재 전북학부

모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jbc.go.kr/parents/index.jbc>)에서 교육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시와 장소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별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됐다"면서 "이번 학부모 교육을 통해 예비학부모들의 불안과 공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가정과 함께 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싱가포르 지회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HATCH 글로벌 거점센터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대, 싱가포르 'HATCH 글로벌 거점센터' 구축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지회와 협약 맺고 현판 전달식 가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싱가포르 지회(지회장 김준영)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HATCH 글로벌 거점센터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진배 총장, 김준영 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주대 학생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외국인 및 차세대에 위한 한국의 전문문화 체험 등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월드 옥타는 차세대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한인 경제인 차세대와 모국 방문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18년부터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협력해 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HATCH 글로벌거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는 글로벌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지 문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월드 옥타는 차세대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한인 경제인 차세대와 모국 방문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농산어촌 독서·교육문화 지원 '한마음 한 뜻'

남원교육문화회관-지리산농협, 협약 체결
회관 폐기도서, 농협 휴식공간에 기증 등

남원교육문화회관과 지리산농협 협동조합은 지난 2일 지리산농협 아영지점에서 농산어촌지역 독서 및 교육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형기 관장, 정대환 조합장,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아영면 마을이장단, 아영면 관내 기관장, 학부모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월, 아영, 산내면 지역 독서·문화·평생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행사와 그 밖에 양 기관의 상생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등에 대해

서공간을 제공해 독서 진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영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모임 아영부모회 대표는 "학생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회관과 협력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기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교육문화 지원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학생·지역주민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 흥미를 유발해 건전한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서문화 행사, 평생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기초영어·AI 활용 영어교육은 '이렇게'

도교육청, 어제 이어 10일 초등 영어캠프 활성화 워크숍

전북도교육청(교육감)은 3일에 이어 10일 초등 영어캠프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80개 초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번 워크숍은 기초영어 및 AI 활용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해 본 교사들의 사례나눔과 담당자 협

의회로 진행된다. 기초영어 분야는 이리서초등학교 조경희 교사, Rulas.kas 원어민보조교사, 전주자연초등학교 오영원 교사가 각각 사례 나눔을 맡는다. 또 AI활용 영어 분야는 전주자곡초등학교 서성아 교사와 이리초등학교 유세희 교사가 AI활용(스피킹클래스)

를 활용한 영어수업 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초등 영어 캠프 활성화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 중심의 실용영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영어캠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더욱 더 실용적인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30억 창업펀드 지방대 '유일'

전북대 대학창업펀드 57억원으로 늘어

전북대학교가 지방대학 중 유일하게 올해 가장 큰 규모의 대학창업펀드 3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학생, 교수들의 스타트업을 돕는 대학창업펀드는 57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전북대기술지주회사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모태펀드(2022년 교육계정 출자사업)에 선정, 30억원을 받았다. 호남권에서는 전북대가 유일하며, 영남권에서는 경북대(20억원)가 선정됐다. 올해 유지한 창업펀드 30억원은 전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메인인용사이며, 한국공학대학교기술지주회사·엑셀러레이터(주)벤처박스 등이 공동운용사로 참여한다. 이 펀드는 투자 기간 4년을 포함, 총 10년간 운영된다. 총액의 65% 이상을 학생 창업·실험실 창업에 투자해 대학 및 지역혁신 창업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전북대학교기술지주사는 2019년 설립됐다. 지난해 8월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27억원을 운용 중이다. 조기환 전북대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부총장)는 "복합 튀는 아이디어와 광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화된 대학창업 생태계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북대학교를 기술혁신과 실험실 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이흥기 교수

수소산업 1호 어워드 '특별상'

우석대학교 이흥기(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수소산업 1호 어워드(Award)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지난 2일 일산 컨텍스에서 '제1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산업포장 등 정부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흥기 교수는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분야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IEC 수소모빌리티 세계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이 교수는 국내외 수소경제 표준과 인증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흥기 교수는 "우리나라가 수소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미래학교 방향 탐색 나선다

도교육청, 7~8일 '미래교육 전환 위한 도약' 주제 특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7~8일 이틀 간 도내 유·초·중등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전북미래교육 특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도약'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스튜어던트 기반 미래교육에 대한 탐색 △능력중적이고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미래역량 함양 △교실 혁명을 에듀테크 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7일 오후 3시에는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심재경 이사의 특강이 준비돼 있다. 심이사는 미래사회와 교육이라는 강의의 통해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8일에는 비전대 행복가속사 2층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상생과 공존의 미래교육'을 주제로 특강이 열린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이지흥 실장이 강사로 참여하며, 이날 교육은 네이버 지원으로 웨일북 시연 및 활용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미래 가치와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라며 "미래사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미래교육을 교육문화로 확산해 나아가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하림그룹 채용설명회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정장모)는 2일 본교 성실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하림그룹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94명과 박심훈 취창업지원처장, 최형주 취창업지원부처장, 정진영 대기업체총무보충보담담당 대학 관계자와 하림지주 인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하림그룹 홍보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채용과 관련된 자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채용설명회는 실질적인 채용정보 및 인사담당자와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학생동아리

'댄스매니아' 공연 성료

전주교육대학교 학생 동아리인 '댄스매니아(DNM)'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 교내 황학당에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재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한 가운데, 약 2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댄스매니아 정현정(문리 2년) 학생은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동아리 활동과 공연이 재 활성화돼 지역사회와 함께 춤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준 총장은 "위축돼 있던 학생 동아리 활동이 이번 공연으로 분위기가 다시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올 초 있었던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일에는 밴드동아리인 '카스트라'가 이 공연을 펼친다. /정은성 기자



미시간주립대 김미란 교수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글로벌 관광 마케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북미 대학과 학생교류 활성화 '박차'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미시간주립대 김미란 교수 초청 특강

오늘 캐나다 세네카주립대 국제교류원 학생교류 담당자와 논의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2일 본교를 방문한 미국 미시간주립대 Hospitality Business학과 김미란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와 대학원생의 단기 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학생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시간주립대는 현재 호텔 관광 관련 학과인 Hospitality Business학과에 5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미시간주립대 Hospitality Business학과 학생 교류협정이 체결되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환학생 선발, 대학원 교류, 탐방(온라인), 미국 내 호텔업계 유망인 특강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국제적인 인목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4일에는 캐나다 세네카주립

대학 국제교류원 학생 교류 담당자 조이 권(Joy Kwon) 씨가 역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를 방문해 학생 교류 등에 관해 논의한다. 세네카대학 호스피탈리티&관광 학교(Hospitality & Tourism School)는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2018년부터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심영국 학장(호텔경영학과)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에 대한 우수한 평판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북미 지역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활성화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북미 지역의 우수 대형 호텔 취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오는 2023년 9월부터 영어 트랙을 개설해 영어권 외국인 신입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